楊州各寺巡禮記 (續)

晩悟生

興國 內院 鶴林 鶴到 佛巖 彌勒 奉永 浮圖 見聖 妙寂 寶光等東南各地에散在한十一個寺院은調査已畢하엿스나白華 檜巖 自在 雙巖 石林 石窟等의西北各寺는그양남아잇는모양이다。前日同行하엿든尹君은事故가잇다하야再次出張할수업다하고其他學生은가자기가亦是未安한지라今回는獨一無伴侶로慨然登程하니때는政히十月中旬이다。本山에서고개를넘어楊州로直通한祝石嶺에至하야暫時歇脚하고다시떠나議政府에到着하니온길은四里에不過이나벌서午正이지내엿다。이곳이停車場이되고楊州新邑으로決定한後에六七家가홍성드뭇하게잇든벌판이數百戶의市場으로化하엿고따라物價도京城以上으로高騰함에밥갑빗사기는有名한場所이다。그러나한가지의特別한것은飲食店이十戶라假定할ㅅ것가트면八九家는依例히떡이잇고價格도他地方보다歇한모양이다。비리비리한飲食을避하기겸廉價厚食이란趣旨下에떡을한그릇사서먹고卽時白華庵으로向하엿다。

議政府에서北便으로멀리바라보면重重한山岳이半空에소삿는대異常하게도山形은모다뒤로잡빠듯하고잇스니그일홈은不曲山이다。李太祖께서漢陽에다定鼎함에모든山川까지라도服膺하나오즉이山만은抗立하야압흐로鞠躬을아니함에골로因하야山名을不曲이라하엿는데旣是寺院이잇는同時에同音改稱이良好하다하야中古以來로는佛谷山이라불럿다한다。여게서一里假量밧게아니되나孤寺單庵에宿泊이疑問이라거름을빨리하야鐵복을전너서舊楊州邑에到着하고그곳中央을橫斷하야維楊公立普通學校압흘나서니白華庵으로올라가는山기실기나타난다。조그마한山동성이를넘어꼴작우니또한참을따가니小規模의寺院이四五棟으로羅列하여잇다。양전하게도築造한槐亭下에서선발을다시하고큰房으로드러가서來意를告한後에住持스님이어데계시나고무러보니看坪出張으로아즉回還

치안핫섯다한다。 監院을案內로紹介하야法堂과樓閣을돌며보왓스나懸板한조각이부터잇지안코잇다는것은오즉法堂門엽혜甲契序라는小木板이엿고樓閣五樑上에는戊辰四月에建築하엿다는것이記載되엿다。此를根據로하고傳說을綜合하야沿革이라고記取하니下와如함이다

白華菴（本山奉先寺의方等地）

當寺는距今一千〇二十八年前新羅道詵國師가初創하엿고

道詵國師는新羅興德王二年丁未에生하야同孝恭王二年戊午에寂하니距今一〇二八年이라當寺가同國師의創建이라傳說만잇고某年月日의文獻이無함으로但國師의入寂年을記載한바이며王與地勝覽을보면佛國寺라名稱하엿는데白華庵이라는寺名은李朝中古以後로改稱함인듯하다。

李太王五年（日本明治元年 清穆宗同治七年）戊辰四月에 祝聖樓를建築하니距今五十九年이요

大正十二年癸亥에現住持月河和尙이高弟申海隱으로더부러寺院全部를一新重修하다。

但本年重修에關한記文은現檢帖寺講主朴耘虛和尙이撰하엿는대아즉雕刻지못하고休紙처름冊張사이에끼여잇게됨은愛惜不已이다

沿革이라고는右와가치記入하고다시槐亭으로나와暫間楓林을玩賞코저하다가咫尺에잇는碑石一箇를發現하엿다。거개무엇이잇나하고갓가히가서드려다본즉碑面에이와가튼文句가雕刻되여잇다。

「牧使徐公念淳愛恤吏民永世不忘碑」라하고그겻헤는「道光二十一年辛丑正月日立」이라고

이碑에主人公은이절에對하야무슨關係가잇섯는가默想하여보왓다。大抵石碑의由來를溯考하면官吏가字牧의責任을極盡히한結果晉時羊祜의墮淚碑와가튼것이업지안치마는朝鮮近古에至하야는두가지의理由가色彩를加하엿나니

甲、官長이暴虐하야浚民膏澤에百姓이堪耐할수업는境遇에는그心理改悛을希望하야此를竪立함이요

乙、狡吏奸民이濊公營私의目的으로知郡의善治與否를不計하고一端阿諛로만此를竪立함이다

前記二點의碑石은竪立이야하지마는흔히뚱뚱으로洗禮를밧거나 또는粉碎의變을當하기도함에奸猾이

極한者는此를大路邊에세우지안코侵漁가稀少한一隅地에세우기도하며或은摧碎의蓬變을免키爲하야見初부터크ㅣ다른巖石에다그양으로새여두는것이種種이다。그러면此寺此碑는果然무슨意味가潛在함인가? 假令僧侶를愛恤하엿다면愛恤僧侶不忘碑라할것이고寺院을愛護하엿다면愛護寺院不忘碑라할ㅅ것이며普通民衆을愛하엿다면그양愛民永世不忘碑라할터인데何必曰愛恤吏民이라하엿는고? 字義로볼ㅅ것갓흐면乙의目的을가진자가吏房깨나엇어하자고此를發起흔대愛吏不忘이라고는넘어나顔厚하닛가民字를冒用하고또建設이잇슬까念慮하야一隅地에세워노코所謂官長에게萬丈德色을마하야小人이使道의不忘碑를名山에다세우게하야永世感慕하겟다고加一層誇張하지안헛든가함이다。그러면寺院에는얼토당토안는物件이아닌가? 그야우리집의無精神은古今이一般이지。

朝鮮佛敎의體面이엇지될ㅅ것도생각지안코近日에와서長數流行碑의樹立을金剛山道場內에容認하여준일도잇지안는가하고이러한冥想으로步武를躕躇할지음에午齋準備가잇다고監院으로부터通知가잇는모양이다。다시큰房에드러가서밥床을닥아노코한술을뜨고보니밥그릇에두번接觸할생각은無可奈何이다。麥者의飲食偏嗜는두가지가잇섯는대一、粉麵(국수)二、麥飯이라粉麵은빗만보고먹지못할境遇이면病이날뜻날뜻하고麥飯에對하야는純米飯을가저純麥飯을交換하자는데언제든지辭讓을아니할習性이지마는當寺의純麥飯은몹서리나게斷念이되니그缺點이라는것은엇에잇는가 直不過맷돌에가라서밥을지은까닭이다。麥粒의大小가잇슬다름인데食味가그와가치틀려잇는것은무슨理由인지할수업다。當寺에對하야調査할거리도別로업지마는더욱이麤麥飯에놀래서遲滯할생각은전혀업다。그길로떠나려할제只今남은時間으로檜巖寺까지갈수가잇겟느냐한즉急速力으로거러가면到着할希望이잇다한다卽時告別하고忽忽히나려온재初行에日暮하게되면何等의困難이發生할는지알수업서엽도도라볼사이가업시舊楊州邑鄕校압흘지내고汽車線路를다시건너서해가막떠러질同時에檜巖寺洞口를當到하엿다。當初생각은 이檜巖寺가麗末鮮初에際하야朝鮮에第一指를屈하엿다한즉櫛比하든佛閣은廢墟가되엿슬지라도山水의偉觀이야그대로남아잇서新坪으로通度를드려가고紅流洞으로海印寺를차저가

는勝蹟은업지안흐리라하엿든것이及其也到着하고본즉지질펀펀한곳이어데다가그렇케宏壯한寺院을建立ㅣ엿든가하는생각도나지안케되여잇다。드러가는길도차질수가업슬뿐더러栗木만드문드문서서잇고田畓이間錯하엿는대人影이끈허젓스니참으로前路가茫茫이다。해는저무럿고창자는밥달라고야단이다。서그른中에도或먹을것이업실가생각하다가어느栗木下에알알두어개를주어먹으니그야말로醍醐上味이다白華庵麤麥飯이잇때를當하엿스면그다지괄시를아니하엿슬뜻하다人家를차저寺의入口를무러가지고조그마한溪流를따라서數町步를올라가니그제야森林이라고조곰나타나고차차든房채가보여준다。아ㅣ인제는사랏구나하고房門압헤다다르니現住持楓谷和尙이欣然히迎接한다。祖室로드러가서조금쉬노라니夕飯을가저왓는대쌀낫이야고볼수업는純粟飯이그것이다。平時가트면그다지반가울것이업실듯한데한그릇을언제다먹엇든지數十圓으로작만한一等料理도珍味에對하야는이보다特殊한點이업스리라생각하엿다。當寺의建物은비록조그마할지라도歷史가만흔곳이라그調査에對하야寶物刪碑浮屠等을點檢하여야할터인즉夜時를利用할수업겟고방이차차느저갈뿐披困이적지안흐니今夜는便히쉴수밧게업다하고從容히드러누워서現住持의來歷과性格을가치못고보는대로評判이나하여볼까한다。和尙은楊平郡龍門寺에眞出家하야學人時代로부터佛院의本懷를그대로직혀오고또는護三寶로하야無限波勸을격거오다가中年에本山奉先寺住持洪月初猊下의高弟가되고따라本末公選으로當寺住持에赴任하엿스며그性格은時代僧侶와大相不同이다。佛敎의骨子인戒體가餘地업시破碎로化하것마는自己혼자嚴格히직혀오며吾家의眞詮은도리혀輕蔑視하고世間科學을重大視하는傾向이滔滔皆是어늘自己혼자暇隙만잇고보면法華經을讀誦한다하야擧世가濁하고醉할지라도自己뿐만은淸하고醒하자는志槪가凜冽하다또그리고平等과無我主義를露骨的으로實行한다。初面不知의어떤한사람이차저와서가치잇겟다고하면그한家人手足으로待遇하고衣食을가치할뿐만아니라甚至於衣鉢과物置場에열쇠까지맛겨주면금방드려온사람이라도제것가치使用을하게되고明朝糧食이떠러젓다告하면첫새벽에乞糧을질머지고山下洞으로나려가서雜穀일망정幾日間窮塞이업도록어더다주고 或은

上佐가되겟다할ㅅ것가트면그사람이야나히만커나또는不具者이거나善惡을不計하고모다고맙다고만생각하야一邊本山으로度牒을請求한다僧籍을手續한다惹端법석이이러나며 或은衣服, 糧食, 器皿等을가만히훔처가면그사람도갓다써봐야지하고 泰然한생각으로勸心이되지아니하며 누가無依無托으로行路의病者가呻吟한담니다하면아ㅣ업어다救濟를하여야지누가장가를갈터인데婚需準備가업담니다하면아ㅣ債務라도내여서限二十圓보래주어야할걸하고卽時出債하야補助하니그렁으로數百圓의債務를버슬날이茫然하다。 心性이이와가치된까닭에누구라도崇拜하지안느니는업는모양이다山下洞民은一週日에몟번粮식食을보태여줄지라도歡喜心으로待遇하며和尙이衆人을取扱하는까닭에法律抵觸도或發生되지마는關係官廳은稍嚴전住持는故意가아니란諒解로畢竟욕주머니가되고말뿐이라한다。 歲入數百石이드는寺院에는僧數따야몟個아니되는것이軋轢도업지안컨마는當寺는在籍僧이원체만코歲入이업는까닭에모다勤儉을하야生活할지라도언제든지百花爛漫時와가치和氣가融融하다。 또細流를가리지아니하니그結果는大海가되고大海가되고보니大魚가업지안홈파가라서智愚를不擇하니龍蛇가混雜되고龍蛇가混雜되니그眷屬中에는相當한資格도업지안타한다。

아ㅣ無我와平等의效果는和尙을두고볼ㅅ것이아닌가釋尊께서羅睺羅外에한子息을더두리라생각하엿드면四生의攝家翁이되지못하엿슬ㅅ것이오 王宮을長時로직히리라하엿드면大千界로都化境을삼지못하엿슬ㅅ것이다。 我가업는곳에眞我가따라잇고我가업는곳에大事業을成就하고我가업는곳에如意寶가隨在이다。 外書에일온말삼「後其身而身先하고外其身而身在」바함이金石의論이아니신가 그러나和尙이短處가업다고는생각이아니된다。 自己所有에蕩無纖塵은거륵하다하겟스나三寶常住物까지롱토려노코그모양으로지내가니寺債는淸償할날이수히업고따라절모양도될수업는듯함에住持資格은아니라고酷評을하는니도잇는듯하다。 呀ㅣ「終日數他寶에自無半錢分」이라困하니잠이나자고明朝부터調査에着手하자그만합홈파가지개로黑甛鄕에드러섯다。 (未完)

退耕스님께

가람

봄에 사지못해 산으로나 가랏더니
님은 산에서 들로나려 오시대나
그러면 우리같은이 산도들도 없는텐가

구름같이 내마음은 한울로나 떠돌래도
다만 발만이 땅에뜨지 아니해라
한걸음 한걸음앞으로 나아갈뿐이어라

처음 밟어가는 그길을 새길이랄가
몃천만 발자욱이 케케이 쌓였나니
가는길 다르다해도 가고보면 한끝이리

치위도어둠도 다가고 봄새벽이 밝어온다
산마다 들마다 새빛이 돌아나고
숨었든 맹비테뜰도 잠을깨어 움즉인다

괴롭게도 기다리든 그봄이 이제야오니
엉클하든 가슴안도 스르르 풀리려한다
이가슴 님의손으로만지면 그얼마나 반가우리

—끝—

漢詩

詠菊

彭鑑淸

其一

歲月如流水 黃花益我思 高懷容世淡 素質入秋宜
堪友氷心客 從聯風雲詩 好携離畔月 不負隔年期

其二

秋心吟別圃 歛石澈寒香 有酒南山近 無家北雁忙